

길에는 본래 주인이 없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<신경준>



활력있는 군정 변영하는 남해

남해 - 여수 해저터널 건설

국도77호선 남해안 미연결구간 완성!
동서통합의 길
남해안권 **新** 관광로드 탄생

남해-여수 해저터널건설추진위원회

남해-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

- ❖ 지난 1999년 광양만-진주권광역협의회에서 남해-여수 한려대교 건설 공동 합의문 발표 후, 네 차례의 국도건설 5개년계획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- ❖ 2020년 1월, 제5차 국도·국지도 5개년 계획¹⁾ 일괄예비타당성조사²⁾ 대상사업에 남해-여수 해저터널이 선정되어 현재 종합평가 중에 있으며(결과 7월 예정), 군민의지를 평가하는 '정책성 평가'를 현재 진행 중이므로 모든 군민과 향우의 염원을 담은 '서명운동'으로 남해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남해-여수 해저터널 '당위성'과 지역민의 '염원'을 '서명'으로 ~

- 1) 국도·국지도 5개년계획이란 국토교통부가 「도로법」에 따라 5년마다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로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임
- 2) 일괄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·평가를 말함

1 사업개요

- 위 치 : 여수시 신덕동 ~ 남해군 서면(국도 77호선)
- 사업기간 : 2021 ~ 2028년
- 사업량 : 도로 7.3km, 접속도로 1.37km ※ 터널 5.93km(해저 4.2, 육상 1.73)
- 사업비 : 6,312억원 (※ 교량 가설 시에는 1조 6천억원 추정)



2 필요성

- 국가균형발전 및 영호남의 실질적 통합 실현
 - 제17·18·19대 대통령공약사업 및 문재인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
 - 실질적인 동서통합 실현과 영호남 상생발전 기대
- 국도 77호선 남해안 구간 중 마지막 미 연결구간 완성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광역 교통망 구축
 - 수도권과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이용 효율 극대화
 - 국도 77호선(남해안 구간) 마지막 단절구간 연결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큼
- 남해안 新 관광로드 탄생으로 남해안권 세계적 관광경쟁력 확보
 - 섬과 섬을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완성 및 세계적인 관광 경쟁력 확보
 - 동부전남과 서부경남(하동·사천·통영·거제) 소통으로 관광 시너지 효과 극대
- 여수시 광역 인프라 시설 및 남해군 청정 환경 공유
 - 해저터널 건설로 남해군~여수시 30분대 생활권 공유
 - 여수시의 풍부한 기반시설 활용으로 남해군은 공항, KTX역 등 신설 효과
 - 여수국가산단 등 기간산업시설 밀집에 따라 배후주거단지로 청정남해 역할 기대
- 재난 등 비상상황 시 대피로 확보 및 대응 접근성 향상

3 기대효과

- 거리단축 : 8km (당초 80km) *전남 여수시 신덕동 ~ 남해군 서면
- 시간단축 : 10분 (당초 1시간 20분)

